

■ 주요 기사

○ 고용부, 여성 고용차별 기업 최초 공개 (5건)

조선	현대다이모스·한라 등 17社, 여성관리자 '0'
중앙	[현장에서] '여성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 더 두터워진 유리천장
동아	금호타이어 등 여성고용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한겨레	금호타이어·한라·메리츠증권... '여성차별' 기업명단 첫 공개
경향	'여성 고용 차별' 개선 안 한 사업장 27곳 첫 공개

○ 대기업 노조 채용비리 관련 (3건)

매경	노조도 국회의원도 "나라야 어찌되든..."
	대기업노조, 비정규직에 갑질
한경	[단독] 취준생 올리는 '고용세습' 귀족노조의 배짱

○ 대선주자의 청년 정책 관련 (1건)

한겨레	청년수당, 조건부냐 무조건이냐...일자리는 벤처·창업 제시
-----	--

○ 환노위,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경보건법 가결 (1건)

매경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	---------------------------------------

■ 주요 칼럼 · 사실

○ 경총, 대졸 초임 인하 권고 (1건)

한경	[사설] 경총의 대기업 초임 인하 권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현대다이모스·한라 등 17社, 여성관리자 '0' A14면
		내용	고용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아 개선 조치를 받았지만 차별 해소에 나서지 않은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 27곳의 명단을 발표. 2014년 4월 법률을 개정한 뒤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
		제목	인사팀 직원 10명 중 6명 "학벌, 채용에 영향 안 줘" B7면
		내용	인사팀 직원의 63.5%(158명)는 실제로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 인사팀 직원 10명 중 6명(59.5%)은 학벌이 좋은 신입 사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묻는 말에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
		제목	네이버·카카오 들어가려면 첫째도 둘째도 '실무 능력' B7면
		내용	다른 인터넷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두 회사 모두 직원이 필요할 때 상시 채용하는 구조. 직군별로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직군 실무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 필요한 자질을 검증한 다음 채용
		제목	대졸 초임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들 B7면
내용	중견기업연합회는 외부 취업정보업체들 추천을 받아 이 가운데 현재 공채를 진행 중인 우수 기업 네 곳을 추천		
중앙	고용 복지	제목	[현장에서] '여성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 더 두터워진 유리천장 E2면
		내용	여성의 고용차별 관행을 없애는 건 여성 인재 활용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와 인사시스템, 유연한 근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제목	삼성 '미전실' 해체 여파, 채용시장 지각 변동 움직임 E3면
		내용	삼성의 미전실 해체가 채용 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던 그룹 차원의 신입사원 공채 절차가 없어지면 각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뽑게 된다. 그럴 경우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 채용이 증가할 것이란 채용 시장의 관측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고용 복지	제목	‘6개월뒤 정규직’ 현실팍... 1년 넘게 인턴중 A12면
		내용	정규직 채용과 연계하겠다고 인턴을 뽑은 뒤 이를 조건 삼아 인턴 기간을 계속 늘리고 추가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환경	제목	금호타이어 등 여성고용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A16면
		내용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가 개선 촉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메리츠증권 등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2일 공개. 금호타이어 내 여성은 전체 근로자 5042명 중 247명(4.9%), 관리자급 임직원 315명 중 4명(1.3%)
매경	노동	제목	노조도 국회의원도 "나라야 어찌되든..." A1면
		내용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약자를 이용하는 사례도 속속 드러남. 최근 검찰에 적발된 한국GM 노조 간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8억여 원의 뒷돈을 받아 사회에 충격을 줌
한경	노동	제목	대기업노조, 비정규직에 갑질 A4면
		내용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결탁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장사를 하고 납품 이권에 개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의 가입을 미루고 있음
한경	환경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A8면
		내용	환노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과잉 규제"라며 즉각 반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음
한경	노동	제목	[단독] 취준생 울리는 ‘고용세습’ 귀족노조의 배짱 1면
		내용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상용근로자 100명 이상)이 3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단체협약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사업장에 지난해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 복지	제목	[사설] 경총의 대기업 초임 인하 권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 35면
		내용	고용시장의 글로벌화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5배를 주겠다는 중국 기업 등이 줄 서는 마당이다. 하향 평준화가 답일 수 없다. 생산성을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고용시장의 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
한경	고용 복지	제목	직원 30% 박사로 키운 대호테크의 ‘인재 투자’ 18면
		내용	"직원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 학비 등 지원해 18명이 고졸에서 박사 학위 취득. 스마트폰 곡면유리 장비 개발 등 매출 작년 1000억원 돌파.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율도 5% 이하.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고용 복지	제목	청년수당, 조건부나 무조건이나...일자리는 벤처·창업 제시 6면
		내용	<청년 소득보장> 문재인, 미취업 청년에 월 30만원 검토. 안희정, 교육훈련 받는 조건으로 수당. 이재명, 19~29살에 연간 130만원. 안철수,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1200만원. 유승민, 적극적 구직 '실업부조'. 남경필, 취업자 1천만원 '매칭펀드' 등
	제목	보자보자 하니까...“저출산은 여성 탓” 탁상행정 에 폭발하다 10면	
	내용	저출산을 여성의 고스펙 탓으로 돌린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초 파문을 일으킨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이어, 정부의 탁상행정식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쌓인 탓이라는 지적	
환경	제목	금호타이어·한라·메리츠증권...‘여성차별’ 기업명단 첫 공개 10면	
	내용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한데다,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기업 26곳과 공공기관 1곳 등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2일 밝혔다	
경향	노동	제목	롯데시네마도 ‘알바 임금꺼기’ 12면
		내용	알바노조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임금꺼기'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보다 임의로 단축해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고용 복지	제목	‘여성 고용 차별’ 개선 안 한 사업장 27곳 첫 공개 12면
		내용	여성 고용 비율이 저조해 정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도 차별 해소에 나서지 않은 금호타이어 등 27개 기업·공공기관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끝>